



『숨겨진 보물의 비유』, 램브란트, 1630년경. 헝가리 부다페스트 미술관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up>st</sup>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http://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https://facebook.com/groups/yagf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김 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 효주 (특정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mailto: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 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mailto:stfrancisks@gmail.com)

## 제1독서 | 열왕기 상 3,5-6,7-12

### 화답송



(후렴) 주님, 당신은 어질 - 고 용서 하시는 분이시 옹 니 다.

- 주님은 저의 뉘이오니, 당신 말씀 지키기로 약속하였나이다. 당신 입에서 나온 가르침, 수천 냥 금은보다 제게는 값지웁니다. ◎
-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자애를 베푸시어 저를 위로하소서. 당신 자비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제가 살리이다. 당신 가르침은 저의 즐거움이웁니다. ◎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 제2독서 | 로마서 8,28-30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복음 | 마태오 13,44-52
- 성가 | 입당성가 [18]
- 예물준비 [220]
- 영 성 체 [156]
- 파견성가 [437]

###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생미사	봉헌
정은진 안나 생일	장혜운 크리스티나
유경자 데레사, 김경련 율리따	김승범 프란치스코
이지연 안나레지나 영명축일 축하	이지훈 아녜스
김승연안나, 여선구요아킴 영명축일 축하	이영애 레지나
장해라 마리스텔라 생일축하	이지훈 아녜스
김지원 루시아, 박경원 요세피나	익명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교리	*신청:사무실

▶**주일 미사 직후 친교실**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  
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맨하탄 성당 주임 신부님 이동**

탐신부님(Fr. Tom, ofm)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조신부님(Fr. Joe, ofm)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요셉회, 성모회 야외행사**

오늘(7/30) 미사후 NJ/Tallman Mountain State Park에  
서 야외행사 있습니다.

▶**박효철 베네딕도 신부님(청주교구) 특강**

8/27(주일), 11시, 다미안홀

▶**청년회 여름캠프에 초대합니다.**

날짜: 8/25-27(2박3일) 장소: Lebanon, NJ  
참가비: 7월까지 신청: \$200, 8월 신청: \$220  
문의: 청년회장 양점마 kakao ID: Jcy258

▶**청년회 비즈세일**

비즈세일이 인기가 있어 캠프 전까지 격주로 판매합니다.  
판매: 8/6, 8/20 미사후 친교실  
품목: 목주팔찌, 반지, 핸드폰줄 판매.  
캠프 펀드레이징을 위한 이벤트로 모든 수익의 20%는 교무  
금으로 입금됩니다.

▶**2024년 부활절 세례,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교리 첫만남: 2023년 10/1(주일), 교육관 3A,  
세례일: 2024년 3/30(토) 부활절야  
교리시간: 매주일 오전 11시, 문의: 김효주 수녀 347.834.5784

▶**포담대학교 ELS수업에 초대합니다.-영어, 컴퓨터**

성프란치스코 성당과 협력하여 진행되며 **수강료는무료입니다.**  
영어 수업: 매주 월, 목 9:30am-12:30pm. 개강: 9/11  
컴퓨터수업: 9:30am-11am(기초)11:30am-1pm(중급)  
개강:9/27 **장소: 성당 교육관1B** 문의:[adultesl@fordham.edu](mailto:adultesl@fordham.edu)

▶**2024년 성지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약속의 거룩한땅, 요르단, 이스라엘"**

날짜: 2024년 4월 15일~ 26일(11박 12일)  
순례지: 모세구리뱀 느보산, 와디럼광야체험, 사해,  
베들레헴, 주님성탄성당, 유다광야, 꿈란공동체,  
예리코유혹의산, 나자렛, 주님탄생예고성당, 갈릴레아,  
베드로생가, 겐세마니, 거룩한 무덤대성당, 승천성당 등등  
인솔: 신부님, 수녀님 경비: \$3,700 예약금: \$500  
문의: 박알버트 646-201-0175 선착순마감: 30명. 9/30까지

▶**교우분들은 미사전 독서와 복음 읽기에 참여합시다**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http://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전례봉사자**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7/30	백이백 아오스딩	민완준 필립보	임지수 마리아	임지수 마리아	김영숙 카타리나	양지수글라라 최예준사도요한
8/6	이영노 울리안나	김규현 프란치스코	이경자 울리안나	이경자 울리안나	김종선 비비안나	양지수글라라 최예준사도요한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남석베드로 박재호베네딕트

**더큰집**  
TEL. 212-564-8238

**HB HANBIT TOUR, INC.**  
한빛여행사  
Mary Lee  
1270 Broadway #303 Tel: 347-840-2112  
(32 St.- 33 St.) Fax: 212-631-8070  
New York, NY 10001 hanbittour@gmail.com

**백승민**  
이민법 변호사  
IMMIGRATION ATTORNEY  
TEL. (551) 335-8868  
EMAIL. EMIN@BAIKLAW.COM

**CHA PHYSICAL THERAPY**  
차 물리치료 | 침치료  
16 W 32nd St. #1007,  
New York, NY 10001  
212-643-9326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Hair City Elegance**  
교우분 환영합니다.  
45-38 Bell Blvd. Bayside, NY 11361  
데레사 718-423-494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 WINE & LIQUOR WEST**  
린다킴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WONJO**  
New Wonjo  
212-695-5815



##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 미사 때 최소한 언제까지 들어가야 영성체를 할 수 있나요?

오늘은 영성체 조건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 질문은 미사의 유효성이 유지되는 조건에 대한 관심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지각했지만 주일미사를 유효하게 봉헌한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일반적인 성사 전체에도 오늘의 질문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례식이 시작되고 나서 중간쯤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세례는 유효한 세례인가?’와 같은 질문과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는 일곱 개의 성사가 있습니다. 이 성사들은 모두 성사의 유효성과 관계되는 핵심적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성사의 핵심은 교회의 뜻에 따라 집전자가 세례자에게 물을 부으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에게 세례를 줍니다.’라는 경문을 외우는 부분입니다. 그 외 흰옷을 입혀 주거나, 대부, 대모가 촛불을 켜서 세례자에게 넘겨주는 등의 부분은 세례성사의 유효성과는 상관없지만, 예식을 보충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부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세례식에 지각했지만, 이마에 물을 붓고 집전자가 경문을 외는 순간에 함께 할 수 있었다면, 그 세례는 유효한 세례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모든 성사에 핵심적인 부분만 놓치지 않는 수준에서 지각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시계를 보면서 얼마나 더 늦어도 좋은지 계산하지 마세요.”(2017년 12월 20일 일반 알현에서)라고 하셨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어느 규정집이나 법전을 살펴봐도, ‘언제까지는 와야 영성체를 할 수 있다’

는 식의 지각 규정(?)은 없습니다. 그보다는 전례에 온전히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구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인 교회는 모든 신자가 전례 거행에… 완전한 참여를 하도록 인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한 참여는 전례 자체의 본질에서 요구되는 것이다.”(전례헌장 14항)와 같은 구절이 대표적입니다. 완전한 참여란 무엇보다 전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는 형식적 완전함을 전제합니다.

그러니 미사 때 집전자가 입당하는 순간부터 퇴장할 때까지 매 순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며,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미사 때 입당 예식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 미사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세요.”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많은 신부님들이 미사 시작 전에 성전에서 충분히 복음을 묵상하며 내적으로 미사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권고하신다는 점을 떠올려 보면, 답은 더욱 명확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사에 지각하셨고 영성체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는 상황에 빠지셨다면, 양심 안에서 진중히 성찰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마치 출석 도장 찍듯이 이번 주 묵의 영성체 한 번을 할 수 있느냐 여부에 매달리기보다는, 진정 예수님을 내 몸 안에 모실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돌아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